



[CES 2022] SK 삼형제 ICT 연합 결성 1조 이상 투자 05



Economy

코스피	2954.89 (0.00)	코스닥	995.16 (0.00)
금리 (미국 3년)	2.015 (+0.002)	환율 (원/달러)	1201.50 (+0.50) (7일)

코로나에도 새 역사 쓴 대기업, 韓 경제 1300조 기여

작년 실적 사상 최고치 달성 삼성 매출 279조 영업이익 51조 반도체·스마트폰 등 실적 견인 LG도 연 매출 70조 첫 돌파 생활가전·올레드TV 판매 ↑

분야가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D램 가격 하락과 관련, 시장의 우려와 달리 실제 낙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들이 정보기술(IT) 투자를 늘리고, 데이터센터 수요도 증가하면서 서버용 D램 수요가 증가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대유행) 장기화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들의 경제 기여액도 지난해 1300조원을 훌쩍 넘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사업과 소비자가전 사업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에선 갤럭시Z 폴드3와 갤럭시Z 플립3 등 폴더블폰 인기에 힘입어 2020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잠정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를 공시했다.

LG전자도 같은 날 연매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LG전자는 지난해 잠정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은 74조7219억원, 영업이익은 3조8677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대비 매출액은 28.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 감소한 것이다. LG전자의 연간 매출액이 7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매출 279조 400억원, 영업이익 51조5700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17.83%, 43.29%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치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2018년(58조 89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프리미엄 생활가전 제품 LG 오브제컬렉션 시리즈와 올레드 TV 판매 증가가 실적에 청신호를 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생·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킨 가전 등의 판매가 늘었고, 프리미엄 제품인 LG 오브제컬렉션 라인업 실적이 크게 개선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발표된 잠정 실적에는 사업 부문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반도체 사업

이런 실적에 LG전자가 생활가전 분야 라이벌인 미국 월풀



오늘부터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스

을 제치고 사상 첫 연간 글로벌 매출 1위 자리에 올라설지도 관심사다. LG전자 생활가전(H&A) 사업부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20조58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미국 월풀 누적 매출액보다 2조원 이상 앞선 수치다. 반도체 공급난과 물류대

란 여파 등으로 4분기에도 월풀이 LG전자를 따라잡지 못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도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이 주도한 CES K-혁신 위상 알렸다



“절망하다.”

매년 CES에 참가해왔던 한 관람객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갑작스럽게 미국을 덮치면서 2년만에 현장에서 개최된 CES2022는 자리를 텅텅 비운 채로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관련기사 5~6면>

그렇다고 실패한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다. 여전히 글로벌 첨단 기술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세계에 소개됐고, 여러 기업들이 만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韓부스 숫자·규모 압도적 현대차 로봇·메타버스로 미래 新기술 존재감 확인 삼성 비스포크 홈 큰 호응

특히 국내 기업들이 다시 한 번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증명하며 이목을 독차지한 가운데 새로운 시대 개념까지 제시해 4차산업혁명 ‘개척자’ 위상을 확인하기도 했다.

◆메타버스 벽을 깬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메타모빌리티’는 올해 CES 2022에서 가장 CES 다운 내 용으로 호평받았다. 전세계 기업들이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에만 주목하고 있는 상

황, 현대차는 로봇기술을 활용해 메타버스와 현실을 넘나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메타모빌리티는 로봇 기술로 모든 사물을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개념이다. 산업계가 메타버스에만 주목하는 사이, 메타버스를 실제로 활용할 방법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메타모빌리티를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메타팩토리’로도 구현키로 한 것.

HMGICS는 공장을 대부분 자동화한 혁신 생산 기지로, 소비자에 맞춤형 모빌리티를 생산해줄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 기지다. 메타팩토리는 실제 공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여전한 ‘워너비’ 삼성전자 현대차가 CES2022에서 가장 미래적인 주제를 소개했다면, 가장 주목받은 회사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올해 CES 2022에 비스포크 홈과 라이프스타일 TV, 갤럭시Z 폴드 3를 비롯한 갤럭시 생태계 제품들을 대거 공개했다.

<4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CES2022 삼성전자 부스에 전시된 ‘팀삼성’ 공간 /김재용 기자

14일 임인년 첫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무게

물가상승·美 긴축 등 압박에 이주열, 인상 가능성 내비쳐

오는 14일 예정된 새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신년사를 통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도 공개되며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9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4일 신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연 0.5%포인트(p), 0.25%p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기준 기준금리는 0.75%로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까지 14개월 동안 9차례 연속 동결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2년 9개월만인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0.50%에서 0.75%로 인상한 것이다. 이후 한은은 11월 금통위에서 다시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시장에서는 올 첫 금통위에서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금리인상 가

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통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함께 짚어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그간 높아진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호작용하여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면에 계속>

/백지연 기자 wldus0248@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문대통령 새해 첫 일정 강원도로 선택 이유 “균형발전 강조 위한 것”
▲이재명 “기재부 관료들 탓에 코로나 지원 친척 안 돼” /사진 뉴스

▲윤석열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이대 남 겨냥 “한줄 공약”
▲“의사 안철수” “文은 코로나 잘 몰랐다... 저는 최초로 극복할 자신”



▲김 총리 “손실보상 확대 진지하게 검토... 추경은 여야 합의 우선” /사진 뉴스
▲김종인, 2030 노린尹 전략에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